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 경 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오늘날 공공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원’일 것이다. 공무원들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바로 ‘민원’이고, 지역 정치인이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영역도 바로 ‘민원’이다. 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 시설 등은 민원에서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이다. 일단 주민과 가장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때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주체로서의 자각을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은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장치이다. 동시에 민원은 철저하게 정치적 영역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자신의 역할함을 호

‘고객’과 ‘서비스’의 뒷에 걸린 공공성

소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욕망을 실현하는 장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감안하면, 사실 민원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아리랑 시네센터는 공공 영화관의 사례는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새로운 실험이라 할 만하다. 2004년 개관한 아리랑 시네센터는 지자체의 소유이면서 성북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 영화관이다. 총 3개 관 436석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개봉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관은 독립영화 전용관으로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영화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화 상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가까운 지하철역 주변에 대형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관객과 수입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3년 말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2015년과 2017년 말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입과 관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정도에 그친다면 열심히 운영해서 관객과 수입 증가를 이뤄 냈다는 객

관적 수치의 성과로만 끝날 것이다. 아리랑 시네센터는 단순한 영화관 운영 이상의 지역 사회에서 마을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마을영화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독립영화 무료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유럽 단편영화제, 터키 영화제, 노인영화제, 왕릉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 개최, 예술의 전당 우수 공연 영상 무료상영회,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팜스데이’, 다양한 발표회와 공연 공간 제공 등 계량적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공공 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어찌 보면 공급 중심의 영화관 프로그램의 하나에 불과할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영화관을 찾는 이들을 ‘고객’으로 대하기보다는 ‘마을 주민’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공공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면서 마을과 지역을 함께 살려 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노 키즈’(No Kids)가 유행하는 사회에서 유모차를 끌고 영유아를 데리고 영화관을 방문하는 육아 맘들을 환대하는 공간, 유치원이 끝나고 잠시 들러 키즈 놀이방에

서 놀다 가도 편안한 공간,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와도 전혀 낯설지 않은 공간, 매점과 카페의 운영이 지역 자활센터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공공 영화관으로서 아리랑 시네센터의 모습이다.

이러한 공간의 모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 문화 예술 공간’에 대한 효율성의 잣대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관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공무원이나 지역 정치인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 ‘민원인’이 아니라 ‘제안자’가 되고 ‘협업자’가 되는 일이다. 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객과 서비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호혜와 환대·배려·우정이 율트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그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공공성이 꽃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걸어 다니는 우리 동네에서 먼저 이웃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종교칼럼

야설(野雪)



원 목  
선덕사 주지

요즘 세상의 말로 야한 동영상을 아동이라 하고, 야한 소설은 야설이라고 한다. 흔한 세상의 말이 어떻게 오늘은 야설을 말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별로 출지 않은 겨울이 있는데 울 겨울은 시작부터 추위가 매섭다. 요즘 종종 광주를 떠나 있어서 광주 날씨를 잘 모르지만 중부 지방은 제법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다.

조선시대 임연 이양연은 ‘야설(野雪)’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야 할 때 /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지니 / 오늘 아침 나의 발자국이 / 뒷 사람의 이점표가 되리라’(野雪野中去 不須翔亂行 今朝我行跡 遂作後人程) 김구 선생이 서산대사의 글이라고 소

개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서산대사의 글이라고 알고 있지만 임연 선생의 글이다. 김구 선생은 이 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니 야설을 아끼고 늘 마음에 담았던 분이다.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고 바위에 새기고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있다. 글처럼 바르게, 착하게 살아진다면 좋으련만 그것은 그저 말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정답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눈 위에서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아야 한다면 만 인생의 눈 덮인 광야에서 길을 찾고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어지러이 헤매는 걸음이 아닐 수 있을까.

왕궁에서 출가한 싯다르타는 나무 아래 앉았다. 출가하기 전에 구상할 때는 출가해서 이러저러하게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출가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니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고민하던 싯다르타는 명상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기로 결심했다. 당시 가장 뛰어난다고 인정되는 두 스승으로부터 명상을 배우고 스승의 경지를 직접 체험했지만 싯다르타는 자신이 기대하던 평화와 행복을 얻지 못했다. 자신의 후계자가 되라는 스승들의

말을 뒤로 하고 명상의 길에서 떠난 싯다르타는 고행자들의 숲에 들어가 6년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치열하고 혹독한 고행을 했다. 최고의 고행자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고행을 통해서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평화와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싯다르타는 6년간의 고행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함께 고행했던 사람들은 그를 타락한 고행자라고 비난하고 떠나갔다. 싯다르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했다.

이처럼 수행 과정에서 벗어나는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니 벗어나 어지러이 함부로 길을 걸은 사람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 누군가가 미리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하고 정해놓은 인생길이 있다면,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 주인공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고, 그에게 시행착오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면서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다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부다가 이루어졌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 찢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 바람과 비에 젖으며 / 꽃잎 따듯하게 피었나니 / 찢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노래한다. 실로 그렇다. 이번 주말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날이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있다. 동지와 크리스마스, 실낱은 모두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 해의 끝에서 올해 내가 찍은 발자국을 돌아보자. 발자국이 어지러운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과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제보다 못한 자리로 퇴행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향상의 길을 찾아가는 결연은 어떤 발자극이라도 바른 것이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이 꽃잎인 것이다. 그리스도와 부다가 몸소 보여주는 삶의 궤적 또한 그러하지 않은가.

기 고

광주·전남 같이 날자



안 기 두  
광주시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대구·경북 같이 날자’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열린 ‘대구공항 통합 이전 국제세미나와 정책토론회’라는 소통의 장에 걸린 표어이다.

광주 군공항이전사업단은 대구시의 초청으로 이번 세미나에 다녀왔다. 행사장은 진지하고 열기가 뜨거웠다. 세미나는 통합 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 발전 전략을 도출한다는 취지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아직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이나 ‘대구 군 공항’은 2017년 2월16일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과 군위·의성군 접경 2개 지역이 발표되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시·도민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분위기

였다. 토론회를 지켜보는 내내 드는 부러움은 무엇일까. 대구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선은 22% 국제선은 81%로 연평균 항공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통합 신공항의 성공은 실증적으로 보고 제2 경부선 고속철도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포항시외도 40분 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KTX를 연결해 접근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신공항 주변의 2.5km 이내에는 공항의 직접 시설로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고 20km 내외 배후 지역에는 공항 기반 시설로 산업단지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도하고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항공 부품 소재, 항공 물류와 항공 정비는 물론이고 항공 서비스에 중심을 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와 경북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모색한 결과를 바로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미래 먹거리와 도시의 발전 등을 찾는 모습에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가야하는지 고민이 되었다.

광주공항은 군 공항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 공항으로 생각하지만 민간 공항

이 군 공항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이다. 그래서 군 공항이 이전하면 민간공항도 이전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남과 광주는 광주공항 이전을 대비해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선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공항의 과제는 무엇일까. 영남 지역에는 동남권 거점 공항으로 김해공항이 있다. 또한 대구공항이 날개를 펴고 있다. 대구공항은 통합이전 성공의 관건은 접근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하고 KTX 제2경부선을 건설해 충청도와 전라북도 항공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들고 우리 지역의 과제 보이는 듯하다.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디까지 왔다. 우리 지역에는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무안 국제공항이 있다. 하지만 KTX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국제공항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KTX 노선을 확정 발표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어야 할 시간은 길지 않아 보인다. 충청권에는 청주 국제공항, 영남권에는 대구와 김해 국제공항이 경쟁하고 있는데 호남권에 두 개

의 국제공항으로 무안 국제공항과 더불어 새만큼 국제공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는 전남도 혼자서 해결 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광주공항 이전과 함께 상생 과제로 이 숙제를 풀어야 국내외 항공 분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는 광주의 민·군 공항 이전, 전남은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숙제가 있었다. 그 방향은 광주·전남 상생 발전으로 비전과 목표는 같으나 방향도 같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발맞춰 하루라도 빨리 타 지역에 우선하여 4차 산업혁명과 세계 항공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 토론회 등 공감대 형성이 시급해 보인다.

‘이제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시간이 왔다.’ 그 마중물은 광주의 민·군 공항 이전에 있으며, 바로 군 공항 이전의 속도가 광주 민간 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 속도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광주와 전남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에 ‘광주·전남 같이 날자’라는 슬로건을 빨리 걸고 싶다.

社 說

찬바람 쌩쌩...솜चे 오르지 않는 사랑의 온도

옛그제 함평 군청 주민복지실 탁자 위에 누군가 검은색 비닐 봉투를 놓고 갔다. 직원들이 봉투를 열어 보니 꼬깃꼬깃 접힌 지폐와 동전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68만1천660원이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 주십시오.” 봉투엔 메모도 담겨 있었다. 지난해 이맘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얼굴 없는 천사’들의 작은 기부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23일 째인 20일 현재 모금액은 1천396억 원으로 목표액(3천994억 원)의 35%에 그쳤다. 사랑의 온도탑은 총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2015년엔 캠페인 21일째 사랑의 온도가 47.3도를 기록했다.

그나마 광주 지역은 좀 나은 편이다. 울산 55.8도(현재 38억 원)에 이어 45.9

도(현재 23억 원)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남 지역은 27.1도(26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사랑의 온도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딱딱한 살림살이와 함께 각종 기부금 비리까지 겹치면서 세밀나눔 문화가 급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우이동을 위한 기부금 128억 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 희소병 딸을 위한 기부금 12억 원을 챙긴 이영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갈수록 기부 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부금이 적절할 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좋은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기부단체와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부단체는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사회적 연대기 필요한 시점이다.

‘나이롱 환자’ 보험 사기 아직도 판친다니

보험 사기가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기는커녕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가장 환자인 ‘나이롱 환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부족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환자’ 보험 사기까지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광주 지역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한다. 기획 조사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사기가 가장 많은 도시 광주’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어서 씁쓸하다.

이들 한방병원들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과잉 진료는 기본이고, 남는 병상이 없음에도 환자를 받아 매출을 올렸으며,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로 등록해 돈을 챙겼다. 또한 상당수 환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마저도 병실에서 지내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아프지 않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했으며, 환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식

수익에만 급급한 병원과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부도덕한 사람들의 합작품인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들은 허가받지 않은 초과 병상 5680개를 1년 4개월간 운영하면서 보험 사기를 벌였다. 적발된 A한방병원은 환자가 거의 없어 병실 침대가 텅텅 비어 있었으며, B한방병원은 일가족이 금·주·일을 집에서 보내고 월요일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허위 입원을 했다가 들켰다. 이렇게 광주와 전남·북에 사는 환자들은 한방병원을 드나들면서 보험금 37억 3000만 원을 받았다.

광주의 한방병원은 100개로 서울보다 2배가 많다. 광주시는 한방병원 개설 허가 시 폐업 전력이 있는지 사무장병원인지 등을 치밀하게 가려 보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가 보험 사기 척결을 위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대로 광주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필요도 있겠

無 等 鼓

네덜란드는 국가를 상징하는 튜립 때문에 나라 전체가 휘청거린 적이 있다. 때는 1630년대. 네덜란드에는 그야말로 ‘튜립 광풍’이 불어쳤다. 셉테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희귀 품종의 구근 1개를 대지 1만6000여 평과 맞교환할 정도였는데 정작 시중에서는 저평가됐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阿姆斯特담 주식 시장과 로테르담 등지에는 튜립 거래 시장까지 생겼다. 투전판이나 다름없는 튜립 거래 시장에서 중개인들은 큰 재미를 봤고 투기 세력 가운데 부자가 된

투기 광풍

사람도 무척 많았다. 하지만 그 거품은 오래가지 않았다. 큰 손들이 약삭빠르게 튜립을 팔아 치우기 시작하자 가격은 삼시간에 폭락했다. 국민은 패닉에 빠졌고 네덜란드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부지 마 투기’ 사례는 프랑스에도 있었다. 존 로(John Law)는 은행을 설립하고 지폐를 발행해 주화 위주였던 프랑스 경제 구조를 바꾼 인물이다. 대중의 인기를 누렸던 그는 미시시피 귀금속 개발을 독점한 투자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발행했다. 벼락부자를 꿈꿨던 국민은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너나없이

이 현안이 됐다. 한 귀부인은 존 로가 지나는 길에서 고의로 마차 사고를 일으켜 그를 만났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 사이에서는 “중적을 감춘 귀부인들을 만나려면 존 로의 집에 가면 된다”는 말이 돌았다. 주식 거품이 빠지자 프랑스 환란에 빠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광풍에 비견될 정도로 거세다. 올 초 120만 원이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14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주부·청소년 사람도 무척 많았다.

하지만 그 거품은 오래가지 않았다. 큰 손들이 약삭빠르게 튜립을 팔아 치우기 시작하자 가격은 삼시간에 폭락했다. 국민은 패닉에 빠졌고 네덜란드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부지 마 투기’ 사례는 프랑스에도 있었다. 존 로(John Law)는 은행을 설립하고 지폐를 발행해 주화 위주였던 프랑스 경제 구조를 바꾼 인물이다. 대중의 인기를 누렸던 그는 미시시피 귀금속 개발을 독점한 투자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발행했다. 벼락부자를 꿈꿨던 국민은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너나없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